

22. 저지방혈증의 원인과 예방 및 조치방법은?

저지방혈증이란 어미 소의 우유 내 필수지방산인 리놀레산(linoleic acid), 리놀렌산(linolenic acid),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 등이 부족하여 포유 중인 어린 송아지의 뒷다리 주변의 털이 빠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포유 중인 송아지가 설사병으로 포유를 못하거나 설사 치료를 위해 장시간 어미 소와 격리되어 젖을 먹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또한 어미 소가 과비육되어 유량이 부족하거나 우유의 질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도 발생한다.

저지방혈증이 발생한 송아지는 피모 불량으로 부분적 혹은 전신 탈모가 나타나 상피 조직에 각질 현상으로 피부병이 발생하기가 쉽고, 다른 송아지에 비해 성장이 지연되고 만성 허약우가 되어 성성숙 지연 및 번식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법으로는 임신 중에 과비육으로 유량부족이나 유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송아지 설사병 치료 시에는 24시간 이상 어미 소와 격리하지 않고 1일 1회 이상 포유시키면서 치료한다.

정상적인 포유 중에 송아지 탈모나 피부병이 발생할 때에는 옥수수기름, 콩기름, 팥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을 급여한다. 한편 식물성 기름성분의 치료제를 정맥주사하기도 한다.

【가축질병방역과 | 063-238-7233】